

미국 초대 산림청장 Gifford Pinchot의 자연보전을 위한 정열과 삶



이 천 용
임업연구원 연구관

Pinchot의 자연보전 철학은 그의 일생을 통해서 조명될 수 있다. 제재업과 상업을 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전통적인 유럽식 임업경영 현장 수업을 교육받았고 대부분 미국 산림관계부서에서 일했다. 펜실바니아 주지사로 있을 때는 오래된 숲을 보존하는데 힘을 기울였고 나중에는 루즈벨트대통령이 사유림을 사도록 권유하였다. 언제나 대화를 좋아했던 그는 1946년 죽을때까지 산림청의 양심으로서 행동했다.

1898년 7월 1일 농업부 장관인 James Wilson은 젊은 그를 산림과장으로 임명하였다. 항상 긍정적이었던 그는 대단히 감격했고 마음속 깊이 기뻐했다. 스스로 일을 정하고 선택한 어떤 일도 두려움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국회가 산림사업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국민들도 산림과(Forestry Division)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

Pinchot는 천재적인 수완가였다. 그는 점차 국회와 국민들에

게 상당한 지지를 받는 능력있는 지도자로 입증되었다. 그는 예산과 직원수에 대해 끈질기게 요구하여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다. 1898년에는 직원 11명, 예산 \$28,520에 불과했으나, 1년후에는 61명, \$48,520이 되었고 1901년에는 더욱 증가하여 179명, \$185,440에 이르렀다. 기구에 있어서도 1901년에는 임업국(Bureau of Forestry)으로 개칭되고 4년후에는 지금의 산림청(Forest Service)이 되면서 첫 번째 수장이 되었다.

Pinchot는 성공이 항상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

지면서 적어도 국회 내외에서 적이 생기는 만큼 빠르게 친구들도 많아졌다. 다행히 그는 정치적인 삶 속에서 날카로운 논쟁을 즐겼으며 논쟁은 대중의 의견을 하나로 만들게 되는 발전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해했다. 그는 대중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대화를 통하여 민주정치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수적임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논쟁을 좋아하는 인물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1865년 James와 Mary Eno Pinchot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뉴욕시의 재력있는 사업가 집안에서 성장했다. 외할아버지

인 Amos Eno는 도시지역 개발로 재산을 모았으며 아버지는 1850년대 뉴욕시의 경제 붐을 타고 사업에 성공하였다. 일반 가정용 가구설비와 사업용 가구설비의 공급자였던 아버지는 많은 상점을 갖고 있었으며 1840년 중반에서 그가 은퇴하던 1870년대까지 상당히 번창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할아버지인 Cyril Pinchot에게 소유하고 있는 목재를 갖고 어떻게 이익을 내는가에 대해서 배웠다. 수익을 최대를 하기 위해서 산림을 벌채하여 통나무로 뗏목을 만들어서 봄철에 강이 불어 나면 트랜톤항이나 필라델피아항으로 실어보내서 시장으로 내다 팔았다. 수익금으로 다른 임지를 사고 나무를 베어 파는 일은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이 사업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19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1885년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업을 이어 받기를 간곡히 권했으나 Gifford는 예일대학에 입학하였다. Gifford는 대학이 학문보다는 사회성이 강하다고 느꼈으며, 1889년 졸업 후 비로소 임업가로서의 진정한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 그 해 가을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을 때 William Schlich과 Dietrich Brandis 같은 몇 명의 학식깊은 임업가를 만났다. 그 뒤 프랑스 낸시라는 곳에 있는 L'Ecole Nationale Forestiere에 등

록했다. 조림학 수업을 받으면서 프랑스 국유림 현장답사를 하면서 처음으로 산림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기초이론 뿐만 아니라 임업의 효율성, 합리적 계획, 과학적인 경영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였다. 자연은 인간에 의해 통제된다는 미국식 사고방식과는 다르게 스위스에서는 임업이 자연친화적이었지만 대부분 유럽국가의 임업은 너무나 상징적이라고 느꼈으며 그 중 정밀한 독일임업은 미국에서 큰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Pinchot는 누가 이익을 얻든지 공익을 위해서 자연자원은 보전되어야 한다고 주창하였다. 1890년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빌트모어에 있는 G. Vanderbilt 소유임지에서 임업가로서의 첫 번째 직업을 갖게 되었으나 단순히 나무를 심고 경관을 회복하는 평범한 일로 지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얻은 경험은 나중에 큰 도움이 되어 빌트모어를 임업의 요람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사실 임업은 주정부가 주는 찬조금에 의해서 근근히 명맥을 유지하였다. 단지 몇사람만이 임업이 번창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지만 19세기 후반까지도 국가에서 임업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초라했다. 1880년 천연자원이 급속도로 없어지는 것을 우려하여 만든 산림국(Bureau of Forestry)은 통계조

사를 하고 사유림에 대한 수확에 관한 문의사항을 조언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했지만 임업에 관한 총괄적인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으므로 그 넓은 국유림 조사를 위한 정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았다. 왜냐하면 농업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산림에는 미처 손이 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산림국은 또 다른 이유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는데 독일 태생 임업책임자인 Fernow는 넓은 지역을 국가가 경영하는 것에 대해서 회의적이었고 Pinchot가 biltmore에 소규모로 한 실습에서 얻은 지식에도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1898년 Fernow의 후임으로 산림국에 돌아왔을 때, 미국은 그의 새로운 생각을 펼치고 그가 공부했던 유럽의 임업 개념을 확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정치적으로 세련된 그는 정부 과학자와 정부내 전문가들, 예를 들면 Frederick Newell 그리고 McGee와 함께 국유림 보전을 위한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었다. 산림을 경영하고 보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일 등은 사회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1901년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 그는 국유지와 국유림의 수로, 관개 프로젝트에 관하여 주정부 통제가 가능하도록 법적인 제도적 장

치를 마련하였다. 공공정책에서 보전에 근거를 둔 그의 결정은 산림청의 신설이다. 과거 산림과나 산림국과의 차이점은 국유림을 농림부가 아닌 산림청이 관리하는 것이다. Pinchot는 대통령의 자연보전 정책을 열심히 다하여 수행했다. 산림청은 방목사업, 목재사업, 광산 등에 관한 통제권을 부여받았고 이러한 시도는 상당한 국민의 지지를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개발억제에 따른 지역경제의 손실로 인해 서부에서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1908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임하고 27대 대통령으로 취

임한 Taft는 강력한 보전론자가 아니라 새로운 대통령의 방침에만 관심을 가졌다. 얼마 되지 않아서 두 사람은 국가자원 보전에 관한 행정 조직의 역할에 관한 견해차이로 불화를 가져왔다. Pinchot는 Taft가 관심의 우선인 천연자원을 없애고, 이는 곧 국민을 억압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토지나 물 훼손자 또는 기름, 목재의 훼손은 도둑과 마찬가지로 생각하였고 천연자원 훼손은 사회적 관심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이러한 천연자원 보전에 관한 관심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며 다

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국민들을 강하고 좋게, 능력있고 현명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고 누구에게도 특혜는 없는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Taft는 활발하게 활동하는 그의 자연보전적 견해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전 대통령과는 달리 행정조직 구조상의 권위를 중요시하였고 더욱이 내무부 장관인 Ballinger와 계속 마찰을 일으키는 Pinchot의 열성을 싫어했다. 마침내 1910년 Taft는 Pinchot를 면직시켰다.(계속)

